

# 침곡리 봉화터 '목제 집수시설' 확인

장수지역 가야봉화터 발굴조사서 6세기 전반 만들어진 목제 집수시설 1기·소성유구 1기

장수군은 침곡리 봉화터에서 6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목제 집수시설 1기와 소성유구 1기가 확인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군은 호·영남 화합과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장수가야 역사 재정립을 위해 문화재청(청장 김현모)허가를 받아 '전북지역 가야문화유산 연구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조선문화유산연구원(원장 이택구)이 발굴 조사하고 있는 '장수 침곡리 봉화'의 발굴조사에서 침곡리 봉화터에서 6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목제 집수시설 1기와 소성유구 1기가 확인됐다.

이번 확인된 목제 집수시설은 나무를 만들고 벽에 점토를 채워 축조되었는데 물이 압반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시설로 드러났다.

집수시설은 평면 장방형으로, 규모는 가로 3.4m, 세로 3.1m, 길이 2.2m이다.

집수시설의 축조방법을 보면 산정상부 평탄면에 알반을 2.8m 깊이로 굴착한 후, 바닥에 50~60cm 두께로 점토를 채웠다.

이 후 벽면에 점토를 채워 넣기 위해 목재를 '井' 자형으로 결구한 후 판재를 덧대어 벽을 만들고 벽 안쪽으로 100cm 두께의 점토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집수시설 출토유물.

이러한 축조 방법은 백제 웅진기 수도였던 공산성, 금산 백련산성, 이천 설성산성 등 백제권역의 산성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공산성에서 확인된 시설은 규모와 형태에서 침곡리 봉화터에서 발견된 집수시설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집수시설 안에서 발형토기, 고배편 등 삼국시대 토기 출토 등의 성과를 거뒀다.

침곡리 봉화터에서 발견된 목제 집수시설은 전국적으로도 희소성이 있으며 삼국시대 목조 건축의 특징과 축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침곡리 봉화터에서



소성유구 전경.

발견된 집수시설은 공주 공산성의 목곽고와 매우 유사하고 6C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봉화 사용을 위한 주둔군의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집수시설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 침곡리 봉화터의 역사성과 가치를 규명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성과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보존·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를 계기로 주민 모두가 장수가야 역사 재정립에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고창서 다양한 판소리 공연·체험 즐겨요"

### 매주 금·토·일 상설공연 진행

고창관광발전네트워크(대표 김수남)는 7월 '이달의 가볼만한 고창'으로 '고창의 다양한 판소리 공연과 체험'을 선정했다.

올해 고창군은 사람과 자연, 문화·예술로 위로받는 '치유문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자연경관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문화백신'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매주 금·토·일 다양한 상설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금요일에는 (사)고창농악보존회에서 주관하는 2021 한옥자원활용 아간상설공연 '이팝 : 소리꽃' 공연이 진행된다. 공연은 최초 여류명창 진채선을 주인공으로 한 국악뮤지컬로 소녀시절 진채선과 주변 인물들을 허구적으로 창작, 구성해 소릿길을 가는 진채선을 판소리와 농악 등을 엮어낸 전통 연희극으로 풀어낸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열리지만 휴가 성수기에는 토요일 저녁에도 공연이 이어진다.

주말에는 주민공정여행사팀에서 운영하는 '솔바람 땃잎소리 고창읍성 여름나기(토·일)'와 국악예술단고창이 진행하는 '모양성 유랑단(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솔바람 땃잎소리 고창읍성 여름나기' 프로그램은 소리꾼과 함께 고창읍성을 시작으로 인근의 명소를 둘러보는 반나절 산책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020문화유산 스토리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 고창읍성 매표소에서 출발한다.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모양성 유랑단'은 고창읍성을 무대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성 쌓기 설화와 극락세계 설화를 주제로 '국악예술단 고창'이 주관해 만든 판소리 창작극이다. 고창읍성의 '답성놀이' 주제를 관객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 흥미와 재미를 느끼며 고창읍성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고창은 판소리의 고장답게 판소리 관련 여행명소도 많은데 판소리박물관과 동리신재효고택, 김소희 생가 등을 연계 여행지로 찾아볼 만하다. /고창=김영성 기자

## 전북대박물관, 수장고 투어 프로그램 운영

8일부터 전라감영 책판·조선시대 고문서 두루 살펴 볼 수 있어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홍찬석)이 2021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일환으로 박물관 수장고



전북대학교박물관이 2021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일환으로 박물관 수장고 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움츠러든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과 지역민들의 문화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수장고 소독이 완료되는 8일부터 투어가 실시된다.

1회 8명을 원칙(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으로, 쉽게 볼 수 없는 전라감영 책판과 조선시대 고문서를 두루 살펴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이번 수장고 투어에 베네핏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일정 및 참여 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1회 8명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수장고 투어 시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는 착용해야 한다.

수장고 투어는 내년 2월까지 상시 운영하며, 매주 월~금 오전 1회, 오후 1회 각각 진행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일정은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특히 안전을 위해 발열 체크·방문록 작성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신청은 전북대학교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자료실/5번(수장고 견학 신청서-외부단체 전용)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063-270-2552)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도내 예술인 지원금 추가 지원

지원금 수령 못했거나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대상 오늘부터 접수

지금까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했거나, 신규로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을 대상으로 7월 중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는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도내 예술인 725명에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추가 접수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원금은 접수순으로 270여 명에 지급된다. 공고는 재단 누리집(http://www.jbct.or.kr) 열린광장에서 볼 수 있다.

접수방법은 이메일(jb\_7445@hanmail.net) 또는 예술인복지증진센터(전북예술회관 1층)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작년과 올해 6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예술인과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 완료되지 않았거나 국공

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6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예술기획자 A씨는 "코로나19로 활동이 줄어든 시기에 자기개발비용으로 유용하게 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예술인 B씨는 "전라북도에서 예술인에게 관심을 가져 고맙고, 특히 어려운 상황에 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도내 예술인은 현재 누적 3,526명이다. 예술활동증명 신청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artist.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230-7428, 7438)에서 대행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